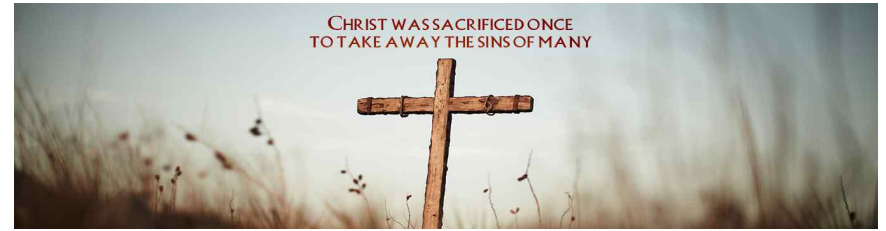


제목: "하나의 생명, 하나의 기회. 지휘봉을 넘기라"

말씀: 로마서 1장 24-32, 3장 10-18절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성경말씀 ..... 로마서 1장 24-32절, 3장 10-18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Romans 1: 24-32, 3:10-18 신약 238 페이지 Presider

말씀 ... "One Life One Chance. Pass the Baton".. Rev. Andrew Chun  
 Message Rev. Kim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찬양/헌신기도 ..... (393장) 오 신실하신 주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Great is Thy faithfulness All Together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볼 수 없었던 경기)

지난 주 한국 U-20(Men's youth soccer team) 팀이 세계 대전에서 이탈리아 팀과 준결승 경기를 했다. 나는 한국 U-20팀이 그렇게 잘 하는 줄 몰랐다. 우연히 뉴스를 듣다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준결승전이 조금 전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전화로 인터넷을 열었다. 그런데 벌써 전반전이 1대 1로 끝이 나고 휴식 중이었다. 후반전이라도 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여기저기를 뒤졌다. 그런데 유튜브에 어디에도 무료로 실시간 중계해 주는 곳이 없었고 오로지 말로 실시간 중계를 하든지 아니면 만화 같이 그림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는 곳은 있었다. 그러는 사이 벌써 후반전이 15분이나 지났고 한국 MBC에서 독점 중계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 MBC 방송으로 가서 열어보니 중계를 겨우 볼 수 있었지만 1분 정도 나오고는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다시 겨우 나오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정지가 되어 볼 수 없었다. 얼마나 속상했던지 모른다. 나 같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경기를 볼 수도 없다는 말인가? 그러다가 경기는 1대 2로 지고 말았다. 경기를 이기지 못해서 안타까웠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웠다. 그리고 나니 45분 동안을 씨름 한 것이다. 다른 길이 있었겠지만 알지 못했다.

그 45분 동안 한국 팀도 열심히 달렸겠지만 나도 정말 열심히 볼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노력에 노력을 더 했다. 경기가 끝난 후 생각한 것이 있다. 내가 과연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노력에 노력을 더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보고 또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가? 말이다. 그나마 신학교 때와 평신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준비 끝 마무리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나에게 그러한 말씀에 열정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

축구 경기는 그렇게 열심히인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읽고 묵상하지만 준결승을 보고 위한 열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확인한 것은 나에게도 그러한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나 씁쓸하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1-15절)고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부족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더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열심을 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며 나의 끝을 계수 할 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나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 참 믿음 생활이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5월 행사

목자 훈련	6월 25일(주)	친교 후
목장 모임	6월 25일 주 중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